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 469-478,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46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교수의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천 역량 분석

이순덕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Faculties'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Soon-Deok Lee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교수행동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교수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교수행동은 8개 하위요인에 속하는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2개 대학 86명의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결과, '중요 내용의 강조기법 적용'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효과적인 교수행동 전략들은 중요도(M=4.48, SD=.39)에 비해 실행도(M=4.07, SD=.40)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또한 IPA 분석 결과, 전체 40개 항목 중 19개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아 지속 유지해야 할 항목으로, 5개 항목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아 개선노력 집중이 필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개선노력 집중 항목이면서 Borich 요구도 지수가 높아 교수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은 1) 수업목표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전략 수립, 2) 명확한 목표, 적절한 예, 체계적인 수업 진행, 3) 학생에게 질문 기회 부여와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도출되었다. 교수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역량의 진단을 통해 교수개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faculties' perceptions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The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scale consisted of 40 items belonging to 8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86 faculties from 2 universities.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of all items except for 'applying emphasis on important cont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cores of importance were higher than those of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IPA showed that 'keep up the good work' area included 19 items that those were high the score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concentrate here' area included 5 item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effective teaching. The first priority items needing to be improved were 1) Establishing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the objectives, 2) establishing clear objectives, appropriate examples and systematic classes, 3) providing questions,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feedback. We suggested that a faculty development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for effective teaching.

Keywords : Faculty's Perceptions, Importance, Needs Analysis, Performance, Teaching Behavior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과 연구, 봉사는 대학 교수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이다. 사회적 통념이나 교수업적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연구 영역에 비해 교육과 봉사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 간 경쟁체제 심화 등 외부적 환경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

*Corresponding Author : Soon-Deok Lee(Nambu Univ.)
Tel: +82-62-970-0198 email: sdlee9195@nambu.ac.kr
Received August 2, 2017 Revised August 28,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제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5].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 학습의 질 향상이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교수의 교육, 즉 교수(teaching)에 대한 임무가 중요하게 재인식되고 있다. 각 대학들은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CTL을 중심으로 수업능력, 수업전문성, 수업행위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지원 또는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현재 수업에 대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6]. 즉 학생들을 현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의 수업 수행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수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 대학의 CT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교수법이나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소개하는 특강이나 워크숍 방식을 취하거나, 우수 교수로 선발되거나 수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수들의 사례발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수들의 수업역량을 기르고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행동 특성으로 거론되는 전략들에 대한 교수들의 중요도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교수행동 특성들을 자신의 수업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자신의 실천 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집중적으로 실행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해야 하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들을 토대로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수업 준비와 진행을 위해 필요한 교수개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수업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수행동 특성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교수행동 전략들에 대한 교수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효과적인 교수행동 전략들에 대한 교수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전략들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수역량

대학교수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교수(teaching)와 연구(research)라는 두 가지 활동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8],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표로서 교수자의 가르치는 역량인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9]. 역량(competency)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한정하여 주로 활용되는 개념이다[10]. Mayer[11]는 교수능력을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환경을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수역량은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이다[12].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전, 중, 후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교수 행동들과 관련된다.

교수역량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초·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역량을 규명한 연구들[12-14]과, 고등교육에서 좋은 수업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수에게 요구되는 교수역량을 규명한 연구들[15-19]이 주를 이룬다. 또한 대학 교수의 직무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수(teaching)와 관련된 역량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1,3,5,10,20-22].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교수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우섭과 김용주[21]는 우수한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핵심 강의역량을 강의준비, 학습자 배려, 강의 명료성, 강의 열의 및 역동성, 상호작용, 학습목표 도달 추구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여섯 가지 요인 중 교수자의 교

수 수행 효과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의 명료성 역량이라고 하였다. 우수한 교수(teaching)를 위한 교수역량의 규명을 시도한 양은하와 정재삼[10]의 연구에서는 강의 역량과 기본 역량으로 구성된 역량모형을 제시하였다. 강의 역량은 강의운영, 평가 및 피드백,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강의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본 역량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 열정, 학생에 대한 애정 및 관심과 같이 성공적인 교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정인호와 이은진[22]은 교수역량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수 역량을 교수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 철학으로 구성된 기본 역량과 효과적인 강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이현영, 김영수, 허희옥[23]은 공과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수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행동사건면접, 델파이조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공과대학 핵심역량과 일반적 강의역량의 2가지 역량군으로 구성된 역량모형을 도출하였다.

2.2 대학 교수의 효과적인 교수행동

백순근 등[12]은 교수역량을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은 이론적 교수역량에 해당되며,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실천적 교수역량이라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교수행동은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수자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 잘 가르치는 유능한 교수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교수행동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5,24]. 유능하고 효과적인 교수자들의 공통된 기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행동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행동 특성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Borich[25]는 효과적인 수업과 직결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교수행동을 제시하였다. 수업의 명료성, 수업방법의 다양성, 수업활동에의 전념 정도,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정도, 학습자들의 학습 성공률이 구성요인으로 포함된다. 길양숙[6]은 수업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 60명의 강의식 수업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후에 효율적인 교수행동 특징을 수업의 명료성, 학생 참여, 성공적인 학습 경험, 다양하고 목적에 맞는 수업방법, 과제지향성, 허용적인 분위기, 열정이라는 7가지로 제시하였다.

조영하와 박소연[5]은 대학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행동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효과적인 교수행동 7요인은 교과전문성, 교수설계, 교수운영, 학습조력, 커뮤니케이션, 학습성취도 평가, 교수열정이다. 손충기[7]도 수업관련 태도, 수업준비, 수업과정 명료성, 수업내용 구조화, 과제지향성,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 열의 및 역동성,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8개 요인으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공과대학에 적합한 교수역량을 규명하고자 했던 이현영, 김영수, 허희옥[23]은 일반적 강의역량으로 학습자 분석, 교수설계, 교수학습 촉진, 학생과의 관계 형성, 학생존중, 평가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대학 교수자의 효과적인 교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수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행동요인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고취하는데 필요한 행동요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업의 전중후 모든 과정에서 행동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손충기[7]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을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4년제 사립학교인 G대학과 N대학의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전체 86명이다. 이들은 여성 48명(55.8%), 남성 38명(44.2%)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57%, 30대 23.3%, 50대 이상 19.8%로,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력별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7.2%, 5년 이상~10년 미만이 19.8%, 5년 미만과 15년 이상~20년 미만이 각각 17.4%, 20년 이상이 8.1%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교수의 81.4%가 교수법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32.6%만이 전문가 수업컨설팅이나 마이크로티칭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3.2 연구도구

손충기[7]의 연구에서 사용한 효과적인 수업 행동요인이 수업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과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설문지는 수업관련 태도, 수업준비, 수업과정 명료성, 수업내용 구조화, 과제지향성, 동기유발, 열의와 역동성, 상호작용의 8개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별로 4~6문항을 포함한 전체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 작성한 설문 문항을 교육학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토를 받아 수정한 후, 설문 대상자인 교수 2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항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의 각 항목별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중요도는 교수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실행도는 실제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 α는 .957이고, 중요도 신뢰도 Cronbach α 는 .940, 실행도 신뢰도 Cronbach α 는 .934로 산출되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s and reliability of the teaching behaviors

Factors		Items	Importance cronbach's α	Performance cronbach's α
Attitude	1	Personal respect for students	.639	.711
	2	A receptive attitude toward student opinion		
	3	Respect for individual students		
	4	The excitement and pleasure of teaching		
	5	Give students fair opportunities		
Class preparation	6	Learning and applying a new instructional methods	.740	.757
	7	A steady study of the curriculum		
	8	Content organization for student level		
	9	Establishing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objectives		
	10	Predesign lecture notes or materials		
	11	Develop a detailed course of lectures		
Clearness	12	Make a clear questions	.815	.783
	13	Present a summary of student responses		
	14	Describe the content in terms of understandable terms		
	15	Present specific objectives in the introduction		
	16	Identify pre-learning contents in the introduction		
Organization	17	Present the overall outline of the content in the introduction	.820	.791
	18	Integrational organization for instructional contents		
	19	Clear objectives, appropriate examples, systematic classes		
	20	Learning contents organization that meets achievement objectives		
	21	Summary of learning contents		
Task directivity	22	Evaluate whether a goal is achieved or not	.795	.693
	23	Provide additional contents for mastery learning and in-depth learning		
	24	Present various examples to help understanding		
	25	Applying emphasis on important contents		
	26	Repeat for key cont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27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classes	.785	.706
	28	Provides time to think about answers after question		
	29	Implement various questions and activities		
	30	Effective deterrence against students disrupting classes		
	31	Use of student participation instructional methods		
Passion, Dynamics	32	Applying various instructional methods for learning contents	.833	.735
	33	To teach your classes dynamically and enthusiastically		
	34	Appropriate use of eye contact, gestures		
	35	Use of humors for interest		
	36	Adjust the pace of student attention considering the attention spans		
Interaction	37	Encourage students to feel confident	.808	.778
	38	Provide question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feedbacks		
	39	Provide repeated presentation and hints of difficult questions		
	40	Appropriate responses to student responses or behaviors		
Total			.940	.934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2개 대학 10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면대면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86명의 교수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순히 수치값만을 비교하는 t검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요구도 지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효과적인 교수 수행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전략들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각 항목이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에 따라 4개의 사분면에 분포되는 방식이다. 1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지속유지', 2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실행도가 낮아 가장 시급하게 개선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개선노력 집중', 3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아 우선순위가 낮은 '우선순위 낮음', 4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음에도 이미 실행 수준이 높아 더 이상의 자원투자가 불필요한 '과잉노력 지양'에 해당한다. IPA 분석결과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들은 2사분면에 배치되는 '개선노력 집중'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다.

4. 연구 결과

4.1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및 차이 분석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8개 하위요인 중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수업관련 태도(M=4.60, SD=.341)이고,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은 요인은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M=4.38, SD=.482)이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M=4.71, SD=.457)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와 기쁨(M=4.67, SD=.519), 학생 개개인에 대한 존중(M=4.66, SD=.5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전학습·심화학습을 위한 부가적 내용 제시(M=4.07, SD=.716)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새로운 교수방법 습득과 적용(M=4.27, SD=.583),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M=4.27, SD=.710)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8개 하위요인 중에서 교수들의 실행도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수업관련 태도(M=4.23, SD=.472)이고, 실행도 점수가 가장 낮은 요인은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M=3.85, SD=.537)이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반복 설명(M=4.44, SD=.662)의 실행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요내용에 대한 강조기법 적용(M=4.36, SD=.612),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와 기쁨(M=4.30, SD=.6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전학습·심화학습을 위한 부가적 내용 제시(M=3.51, SD=.763)의 실행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M=3.63, SD=.841),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M=3.65, SD=.891)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행동 전략의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 점수 평균(M=4.48, SD=.39)이 실행도 점수 평균(M=4.07, SD=.40) 보다 높았다.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요 내용의 강조기법 적용 항목(중요도 평균 4.48, 실행도 평균 4.36)'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검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요구도 지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t값이 높은 항목들의 Borich 요구도 지수가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그 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Borich 요구도 공식이 중요도 값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실행도 수준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요구도 분석 결과, 요구도 지수의 범위는 최저 0.28, 최고 3.02이고 모든 항목에서 양수(+) 값으로 나타났다. 양수값은 중요도보다 실행도의 점수가 낮다는 것이며, 모든 항목에 대한 요구가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도 지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요구도 3.02)이고, 이어서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요구도 3.00), 수업목표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전략 수립(요구도 2.6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요구도 지수가 가장 낮은 전략은 흥미를 위한 유머의 적절한 활용(요구도 0.28)이었다.

Table 2. Difference analysis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Factors	Items	Importance		Performance		Imp.-Per.		t	Borich Needs	Ranking
		M	SD	M	SD	M	SD			
Attitude	1	4.71	.457	4.29	.630	.419	.622	6.237***	1.97	15
	2	4.49	.569	4.16	.648	.326	.676	4.464***	1.46	31
	3	4.66	.500	4.29	.717	.372	.752	4.587***	1.74	22
	4	4.67	.519	4.30	.652	.372	.575	6.002***	1.74	22
	5	4.45	.607	4.09	.806	.360	.718	4.655***	1.61	26
Att. total		4.60	.341	4.23	.472	.370	.411	8.342***		
Class Preparation	6	4.27	.583	3.67	.804	.593	.831	6.615***	2.53	5
	7	4.65	.526	4.15	.760	.500	.763	6.076***	2.33	7
	8	4.55	.546	4.14	.814	.407	.675	5.589***	1.85	19
	9	4.59	.561	4.01	.728	.581	.774	6.965***	2.67	3
	10	4.58	.563	4.19	.759	.395	.559	6.559***	1.81	20
	11	4.42	.677	3.91	.761	.512	.808	5.872***	2.26	11
Pre. total		4.51	.381	4.01	.518	.498	.495	9.345***		
Clearness	12	4.53	.588	4.09	.697	.442	.625	6.556***	2.00	13
	13	4.44	.625	4.10	.752	.337	.791	3.952***	1.50	29
	14	4.50	.609	4.27	.676	.233	.746	2.890**	1.05	37
	15	4.49	.682	4.21	.799	.279	.746	3.469**	1.25	33
	16	4.45	.663	4.19	.790	.267	.693	3.578**	1.19	34
Cle. total		4.48	.481	4.17	.545	.312	.531	5.442***		
Organization	17	4.52	.627	4.28	.714	.244	.685	3.306**	1.11	36
	18	4.44	.644	4.09	.849	.349	.763	4.238***	1.55	27
	19	4.56	.566	4.05	.592	.512	.715	6.633***	2.33	7
	20	4.34	.662	3.99	.563	.349	.682	4.743***	1.51	28
	21	4.49	.664	4.10	.841	.384	.897	3.969***	1.72	24
Org. total		4.47	.483	4.10	.533	.367	.525	6.490***		
Task Directivity	22	4.40	.691	3.79	.799	.605	.885	6.337***	2.66	4
	23	4.07	.716	3.51	.763	.558	.889	5.821***	2.27	10
	24	4.58	.563	4.26	.598	.326	.676	4.464***	1.49	30
	25	4.48	.681	4.36	.612	.116	.676	1.595	0.52	39
	26	4.60	.656	4.44	.662	.163	.717	2.105*	0.75	38
Dir. total		4.43	.492	4.07	.463	.353	.536	6.112***		
Participation, Motivation	27	4.65	.548	4.29	.795	.360	.734	4.553***	1.68	25
	28	4.31	.637	3.88	.710	.430	.834	4.786***	1.86	18
	29	4.35	.628	3.79	.705	.558	.745	6.945***	2.43	6
	30	4.33	.743	3.63	.841	.698	.737	8.782***	3.02	1
	31	4.27	.710	3.65	.891	.616	.948	6.031***	3.00	2
Mot. total		4.38	.482	3.85	.537	.533	.554	8.908***		
Passion, Dynamics	32	4.48	.589	4.01	.711	.465	.762	5.658***	2.08	12
	33	4.55	.587	4.15	.712	.395	.656	5.590***	1.80	21
	34	4.55	.567	4.27	.742	.279	.680	3.806***	1.14	35
	35	4.38	.654	3.74	.923	.640	.969	6.120***	0.28	40
	36	4.49	.589	4.02	.735	.465	.778	5.547***	2.00	13
Dyn. total		4.49	.462	4.04	.536	.449	.515	8.080***		
Interaction	37	4.63	.595	4.22	.742	.407	.773	4.884***	1.88	16
	38	4.56	.625	4.06	.709	.500	.793	5.845***	2.28	9
	39	4.34	.625	4.03	.832	.302	.841	3.333**	1.31	32
	40	4.47	.645	4.05	.718	.419	.641	6.056***	1.87	17
Int. total		4.50	.496	4.09	.583	.407	.542	6.958***		

4.2 교수행동 전략들에 대한 IPA 결과

대학 교수들의 효과적인 수업 실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전체 평균 4.48(SD=.39)과 실행도 전체 평균 4.07(SD=.40)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점수에 따라 4사분면으로 구성된 매트릭스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지속유지(1사분면)에 19개, 개선노력 집중(2사분면)에 5개, 우선순위 낮음(3사분면)에 12개, 과잉노력 지양(4사분면)에 4개 항목이 분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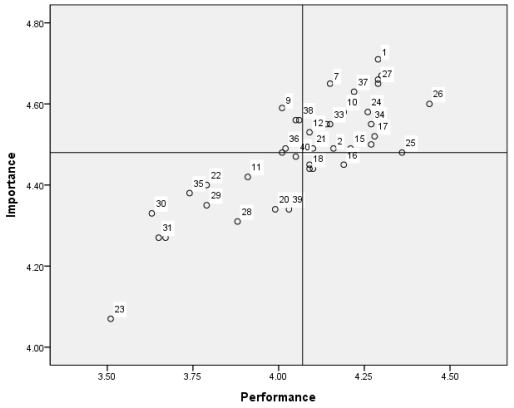

Fig. 1. IPA matrix

Table 3. IPA analysis

Area	Items
Keep up the good work	1,2,3,4,7,8,10,12,14,15,17,21,24, 25,26,27,33,34,37 (19)
Concentrate here	9,19,32,36,38 (5)
Low priority	6,11,20,22,23,28,29,30,31,35,39,40 (12)
Possible overkill	5,13,16,18 (4)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항목과 IPA 분석 결과에서 개선노력 집중 영역에 위치했던 항목들을 따로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교수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3개 항목과 차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6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Table 4. IPA & Ranking

	Items	Rank	Con.
6	Learning and applying a new instructional methods	5	
9	Establishing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objectives	3	O
19	Clear objectives, appropriate examples, systematic classes	7	O
22	Evaluate whether a goal is achieved or not	4	
30	Effective deterrence against students disrupting classes	1	
31	Use of student participation method	2	
32	Applying various instructional methods for learning contents	12	O
36	Adjust the pace of student attention considering the attention spans	13	O
38	Provide question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feedbacks	9	O

Table 5. The first & secondary priority items

Factors		Items
1st	Preparation	• Establishing instructional method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objectives
	Organization	• Clear objectives, appropriate examples, systematic classes
	Interaction	• Provide question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feedbacks
2nd	Preparation	• Learning and applying a new instructional methods
	Directivity	• Evaluate whether a goal is achieved or not
	Motivation	• Effective deterrence against students disrupting classes • Use of student participation method
	Dynamics	• Applying various instructional methods for learning contents • Adjust the pace of student attention considering the attention spans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수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수행동 특징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수준과 이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수업의 실천 원리와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및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8개 하위요인 40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한 반면,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행동 전략 40개 항목 모두 중요도 점수는 4점 이상을 나타낸 것에 비해, 실행도 점수는 11개 항목에서 3점대의 점수

를 나타냈다.

8개 하위요인 중 '수업관련 태도(M=4.60, SD=.341)'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M=4.38, SD=.482)'의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으로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와 기쁨, 학생 개개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도가 높았다. 반면 완전학습·심화학습을 위한 부가적 내용 제시, 새로운 교수방법 습득과 적용,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의 중요도는 낮았다.

실행도 점수는 '수업관련 태도(M=4.23, SD=.472)' 요인이 가장 높았고,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M=3.85, SD=.537)' 요인이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으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반복 설명, 중요내용에 대한 강조기법 적용,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와 기쁨의 실행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완전학습·심화학습을 위한 부가적 내용 제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의 실행도가 낮았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교수법 특강이나 연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면서 좋은 수업이 갖추어야 하는 특징이나 전략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업 설계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수업관련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한 만큼 실천 행동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민성[26]이 말한 '배려하는 교수자'의 모습, 오선아와 이순덕[29]이 말한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생님'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수업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효율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전문성과 명료성 등의 지식요인을 가장 중시하고, 열정과 리더십 등의 태도요인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권영성[2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좋은 수업에서 태도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1,2,7]와는 일치한다.

반면, 수업 설계나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전략들의 중요도와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행도 점수가 낮은 항목들에 대한 이유를 추후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추론 가능한 이유는 제한된 수업시간에 정해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학생활동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효과적인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40개 항목 중 '중요내용의 강조기법 적용'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수행동 전략들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는 있으나, 중요하게 인식한 만큼 실천으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참여유도 및 동기유발' 영역이었다. Borich 요구도 지수가 가장 높았던 세부 항목도 이 영역에 해당하는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요구도 3.02)'와 '학생 참여형 수업방법 활용(요구도 3.00)'이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강조기법 적용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교수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중요도 평균 4.48), 실제 수업에서도 잘 실행(실행도 평균 4.36)하고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숙희의 연구[15]에서 '중요내용의 부각' 항목에 대한 실행도(평균 3.35)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가르치는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교수경험이 축적되고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업 전략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기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Borich 요구도 지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과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관심[13,27]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교수가 중심이 되어 전문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강의 중심 수업, 수동적인 정보 전달 접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의 일반적인 원리나 특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수업전략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된다.

'흥미를 위한 적절한 유머의 활용' 전략은 교수들의 요구도 지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권영성[2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유머 감각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수업의 한 주체인 학습자들의 요구사항까지도 반영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효과적인 교수행동 전략에 대한 IPA 분석 결과,

40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개선노력 집중 영역에 속했다. 이 항목들은 중요도가 높지만 실행도가 비교적 낮은 항목들로 교수들의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40개 항목 중 47.5%에 해당하는 19개 항목이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지속유지 항목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교수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만큼 비교적 잘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수업이나 잘 가르치는 수업에 대한 인식은 교수들의 수업철학과 직결된다. 따라서 교수들이 어떤 특성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13,28].

Borich 요구도 지수가 높은 우선순위 5개와 IPA의 개선노력 집중 영역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항목을 교육적 요구가 높은 최우선 과제 3개로 선정하였다. 좋은 수업 또는 잘 가르치는 수업을 위해 교수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전략은 1) 수업목표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전략 수립, 2) 명확한 목표, 적절한 예, 체계적인 수업 진행, 3) 학생에게 질문 기회 부여와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다. 이 항목들은 수업준비, 수업내용 구조화, 학생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각각 해당한다. 좋은 수업이나 잘 가르치는 수업은 수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의 교육적 요구도와 개선노력 집중 전략들을 반영하여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에 소속된 교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이나 배경, 목표 등이 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또한 수업경험이 자신의 교육철학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실제 수업 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29] 교수들의 경력, 전공영역 등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교수 경력별, 학문영역별 세분화된 처방적 교수개발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 Y. Kwon, S. Y. Shin, J. S. Kim, “A study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teaching quality in univers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1, no. 1, pp. 51-78, 2011.

[2] C. J. Song,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student-teacher communication, and course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5, no. 2, pp. 171-200, 2014.
DOI: https://doi.org/10.15753/aje.2014.15.2.007

[3] H. D. Song, S. Y. Jang, Y. K. Kim, “An need assessment of faculty member's job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xperienc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no. 4, pp. 149-179, 2013.
DOI: https://doi.org/10.15753/aje.2013.14.4.007

[4] H. J. Lee, J. H. Lee, “Analysis of university accreditation criteria for quality university teach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9, no. 3, pp. 173-204, 2008.
DOI: https://doi.org/10.15753/aje.2008.9.3.008

[5] Y. H. Cho, S. Y. Park, “Exploration of a scale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in university education”,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05-127, 2013.

[6] Y. S. Kil, “Characteristics of teaching methods and teaching behaviors used by the professo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8, no. 4, pp. 405-428, 2011.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1.28.4.405

[7] C. K. Son, “ A studies on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eaching improvement of university faculty and the test of its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0, no. 2, pp. 121-150, 2003.

[8] Fairweather, J. S., “The mythologies of faculty productivity: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73, no. 1, pp. 26-48, 2002.
DOI: https://doi.org/10.1353/jhe.2002.0006

[9] Carrell, S., West, J., “Does professor quality matter? Evidence from random assignment of students to professo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8, no. 3, pp. 409-432, 2010.
DOI: https://doi.org/10.1086/653808

[10] E. H. Yang, J. S. Chung, “Needs analysis for improving teaching competen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6, no. 2, pp. 25-52, 2010.
DOI: https://doi.org/10.17232/KSET.26.2.25

[11] Mayer, R. E., Applying the science of learning.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2011.

[12] S. G. Baek, E. H. Ham, J. Y. Lee, H. J. Shin, Y. L. Yu, “A theoretical inquiry on the construct for teaching competence in secondary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8, no. 1, pp. 47-69, 2007.
DOI: https://doi.org/10.15753/aje.2007.8.1.003

[13] S. Y. Kwon, “Teachers’ conceptions of good teaching in secondary school: the analysi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6, no. 1, pp. 185-215, 2010.
DOI: https://doi.org/10.17232/KSET.26.1.185

[14] K. W. Chang, H. J. Kim, “Teaching competencies for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2, no. 2, pp. 285-310, 2012.

[15] S. H. Kang, “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ffective teach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Contents, vol. 15, no. 2, pp. 520-528,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2.520

[16] M. J. Park,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Humanities Research, 75, pp. 229-253, 2008.

[17] S. J. Yune, "Analysis of good college teaching characteristics by multi-faceted approach", Jour. Fish. Mar. Sci. Edu., vol. 24, no. 6, pp. 963-976, 2012.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2.24.6.963

[18] Alexander, A., Karvonen, M., Ulrich, J., Davis, T., Wade, A., "Community college faculty competencie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vol. 36, no. 11, pp. 849-862, 2012.
DOI: https://doi.org/10.1080/10668926.2010.515511

[19] Tigelaar, D. E., Dolmans, D. H., Wolfhagen, I. H., Van der Vleuten, C. P.,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ramework for teaching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vol. 48, no. 2, pp. 253-268, 2004.
DOI: https://doi.org/10.1023/B:HIGH.0000034318.74275.e4

[20] Y. S. Kwon, "An analysis of factors of effective lecturing behaviors in university clas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6.

[21] W. S. Lim, Y. C. Kim, "Analysis of the professor's core lecture competen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5, no. 4, pp. 413-434, 2007.

[22] I. H. Jeong, E. J. Lee, "Educational needs analysis depending on professors' position for teaching competency reinforcement.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vol. 7, no. 1, pp. 1-22, 2012.

[23] H. Y. Lee, Y. S. Kim, H. O. Heo, "The development of a inventory for teaching competency in colleges of engineer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8, no. 3, pp. 439-469, 2012.
DOI: https://doi.org/10.17232/KSET.28.3.439

[24] Sergiovanni, T., & Starratt, R., Supervision: A redefinition. Boston, Ma: McGraw-Hill, 2002.

[25] Borich, G. D., Effective teaching methods (7th Ed.). Boston: Allyn & Bacon, 2011.

[26] M. S. Kim,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aring professo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61-86, 2011.

[27] Kember, D., "Promoting student-centred forms of learning across an entir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58, 1-13,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734-008-9177-6

[28] S. Y. Lee, S. Y. Hong, "Promoting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with reflective thinking using e-portfolio", Journal of Korean Contents, vol. 13, no. 11, pp. 968-978,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968

[29] S. A. Oh, S. D. Lee, "Epistemological beliefs and perspectives about good teacher and good instructional practices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 10, no. 1, pp. 25-45, 2011.

이 순 덕(Soon-Deok Lee) **[종신회원]**

- 199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6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협력학습, 수업설계, 인지심리